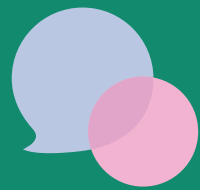


2022년 6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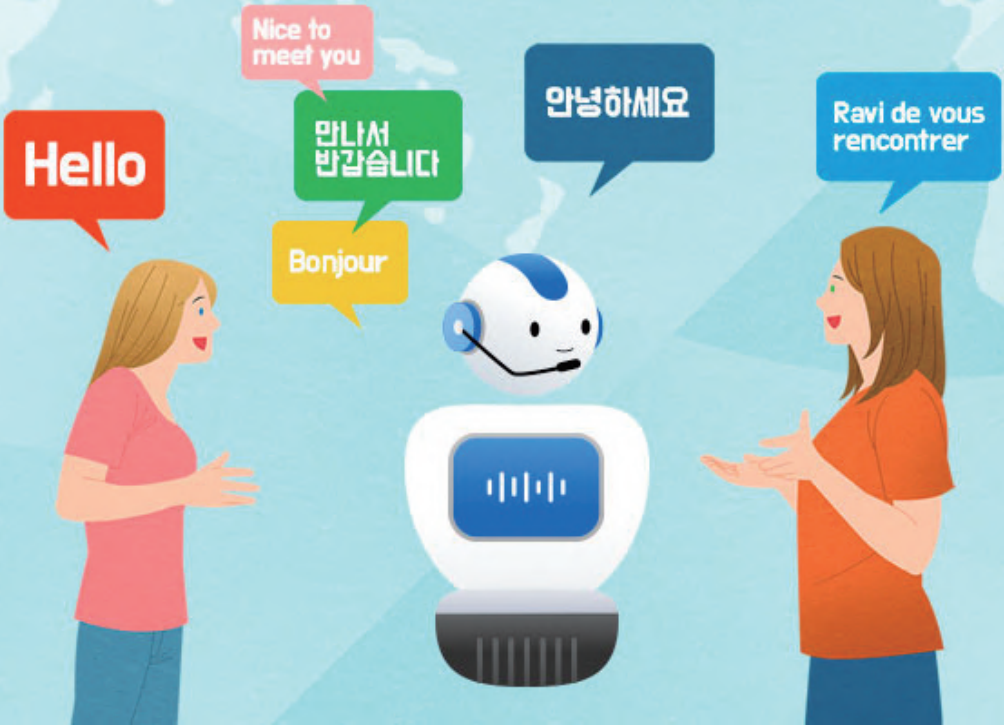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좋은 말뭉치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주어와 서술어는 호응해야 해요!	11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소월 시 둘러보기	13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컬처 핏’은 ‘조직 문화 적합성’으로	15쪽
국어 알리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17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1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사사와 사숙, 같은 듯 다른 쓰임새	21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써요!	25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영랑 시 둘러보기	27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국립국어원, ‘세종과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 개최	29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속 차별 언어 직업과 관련된 표현	31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5쪽

좋은 말뭉치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플리토(Flitto) 이사 강동한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 혹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순간, 인공지능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요소로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챗봇, 자율 주행 자동차, 드론,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춘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다.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인간의 말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핵심은 말뭉치이다. 말뭉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글로 쓴 문장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한 언어로 된 단일 언어 말뭉치(monolingual corpus, 단일 언어 코퍼스)도 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병렬 말뭉치(parallel corpus, 병렬 코퍼스)도 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말뭉치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말뭉치가 최대한 많을수록, 그리고 최대한 품질이 좋을수록 사람들의 다양한 말을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가능하다.

■병렬 말뭉치 구축 현황

세계적인 아이티(IT)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가 공용어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각국의 모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를 구축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OPUS(<https://opus.nlpl.eu>)는 병렬 말뭉치 구축 자료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각 언어 쌍들의 병렬 말뭉치 개수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가 포함된 병렬 말뭉치에 비하여 한국어가 포함된 병렬 말뭉치 개수는 매우 적다. 특히 우즈베크어나 캄보디아어의 경우 구축된 말뭉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가 포함된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우즈베크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위해서는 영어-우즈베크어 병렬 말뭉치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빠르다. 한국어-우즈베크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영어-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영어-한국어 번역만으로도 40만 개의 한국어-우즈베크어 병렬 말뭉치를 확보할 수 있다.



병렬 말뭉치 구축 현황			
(단위: 백만)			
영어 병렬 말뭉치	말뭉치 구축 개수	한국어 병렬 말뭉치	말뭉치 구축 개수
영어-러시아어	213.8	한국어-러시아어	16.5
영어-베트남어	66.9	한국어-베트남어	7.9
영어-우즈베크어	0.4	한국어-우즈베크어	0.1
영어-인도네시아어	95.0	한국어-인도네시아어	7.3
영어-캄보디아어	0.9	한국어-캄보디아어	0.5
영어-타갈로그어	11.3	한국어-타갈로그어	1.3
영어-태국어	13.1	한국어-태국어	3.3
영어-힌디어	26.9	한국어-힌디어	4.4



■ 병렬 말뭉치 구축의 난관

그러나 제2언어 말뭉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확장하는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역은 흔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두 번의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또한 이런 번역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최초의 병렬 말뭉치의 품질이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위 누리집(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병렬 말뭉치는 개수는 많지만, 누리집을 수집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한국어 병렬 말뭉치를 확인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오류 예시 첫 번째: 원문 의미 불명확, 번역 오류

영어: Zhu thus became grateful to Han.
한국어: 하며 세조가 진노하였다.
바른 해석: 따라서 주는 한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오류 예시 두 번째: 원문이 영어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의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 En Grèce, c'est la mafia totale!
한국어: 2014년 1월 9일에 확인함. En Grèce, c'est la mafia totale!

이처럼 오류가 있는 병렬 말뭉치를 기계 학습에 사용할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검증된 전문 번역가들의 번역과 검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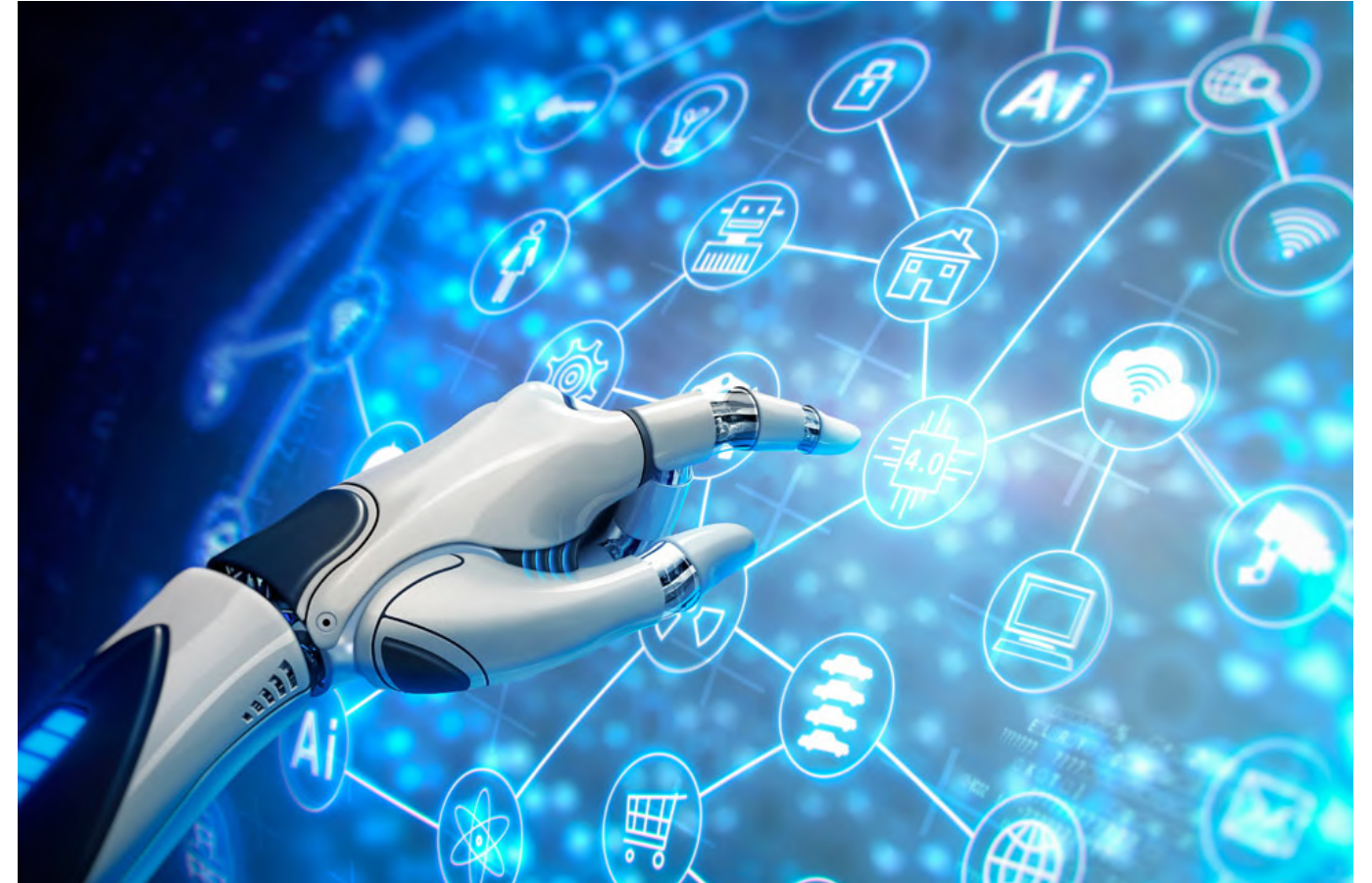
■ 병렬 말뭉치 구축 방법

병렬 말뭉치 구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원문 확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는 널리 쓰이면서도 유용한 원문을 확보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기계 번역 학습을 위해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를 병렬 말뭉치로 이용하였다. 캐나다는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영어 외, 기구에 참여하는 국가의 언어로 문서를 작성한다. 이 같은 문서를 활용한다면 정확한 고품질의 병렬 말뭉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문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는 사람들의 일상 언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어체 문장뿐만 아니라 구어체 문장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문어체 문장들은 신문이나 책, 공식 문서 등에서 저작권을 확보하고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구어체 문장들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구어체 문장은 인터넷 메신저 내 대화인데, 대화 내용 중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 계좌 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야 하고, 빠르게 대화를 주고 받는 인터넷 메신저 내 대화의 특성 상 한 문장을 여러번으로 나눠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미가 통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가공하지 않는 한 각 개인에게서 이 같은 메신저 대화를 구입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플리토와 같이 기업이나 연구 기관의 요구에 맞게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 및 정제하여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2) 원문 정제

이렇게 확보한 문장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무 긴 문장은 적당한 길이로 나누어야 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거하거나 비식별화를 진행한다. 특히 성차별적인 표현,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에 걸러 내는 작업이 필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현을 완벽하게 정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최근 기계 번역기의 대부분은 인공지능망 번역 방식으로 대규모 병렬 말뭉치를 학습하여 기존에 학습한 문장을 참고하여 번역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오타나 비표준어 등을 완벽하게 거르지 않고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요’가 표준어나 일상 대화 문장에서는 ‘-구요’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비표준 표현을 모두 표준어로 정제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 기계 학습에 사용한다면 기계 번역기는 일상 대화를 매끄럽게 번역하지 못할 수 있다.

3) 원문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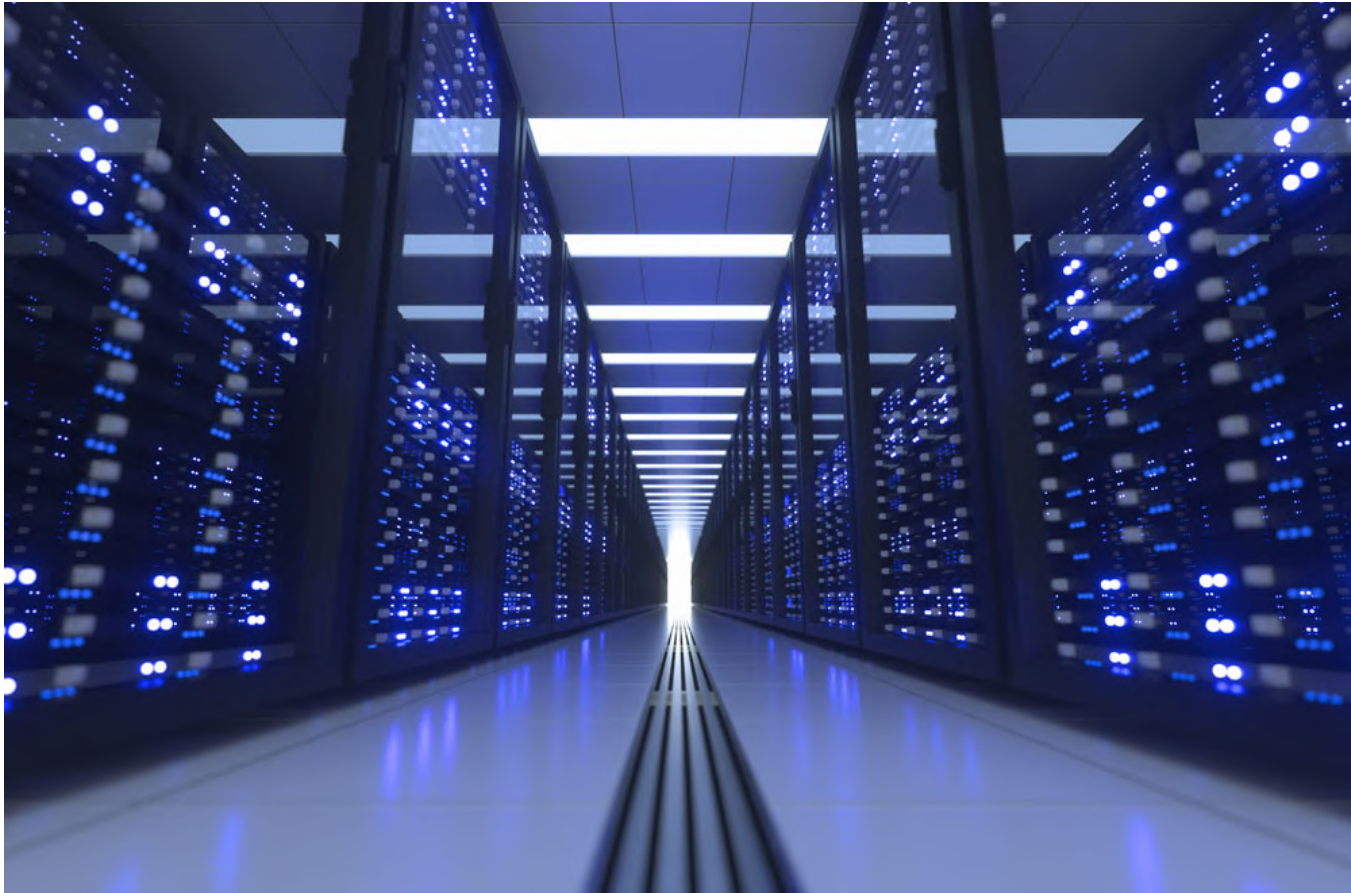
정확한 병렬 말뭉치 구축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문을 보며 하나하나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간과 자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MTPE(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라는 방법도 사용한다. 기계 번역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언어로 번역한 후, 잘못된 표현이나 단어 위주로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문장 전체를 새롭게 번역하면 더 빠르게 병렬 말뭉치 구축이 가능하다.

■병렬 말뭉치 구축 시 주의할 점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변환이 아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문화는 고스란히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공식 문서나 일상에서 일본 고유의 연호가 자주 쓰인다. 올해 2022년은令和(레이와) 4년이다. 태국 역시 불교력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은 2565년이 된다. 한국어 원문에 있는 2022년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태국에서는 1479년이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너도 플리토에 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저 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와 같은 고유한 표현의 번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고유한 표현에는 특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를 맥락에 따른 제대로 된 의미 파악 없이 ‘강남’, ‘금강산’을 그대로 번역하여 말뭉치를 구축하는 경우, 기계 번역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번역 시, 번역가 대부분은 표준어로 번역하지만 의도치 않게 표준어가 아닌 단어, 지역 방언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다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말은 경상도와 전라도 방언 정도의 차이가 아닌 서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번역가의 출신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병렬 말뭉치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축된 병렬 말뭉치 검증하기

대량의 병렬 말뭉치를 한번에 구축한다면 구축 당시 고용된 번역가들의 실력, 번역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병렬 말뭉치를 구축한다면 일부 오류가 있어도 기계 학습 과정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문장이 기계 학습의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 번역기의 번역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BLEU 점수는 기계 번역의 결과로 나온 번역문이 사람이 작성한 번역문과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서 점수를 산출한다. BLEU 점수를 반대로 이용해서 번역가가 한 번역이 기계 번역기의 결과와 비교해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번역가의 번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기계 번역기의 성능 향상으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병렬 말뭉치 품질 검증이 가능하다.

병렬 말뭉치 확장하기

공개되어 있는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까지 확장하는 경우, 병렬 말뭉치 자체의 신뢰도 검증,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수정과 같은 과정이 새로 필요하다. 따라서 말뭉치 자체를 새로 구축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는 달리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는 언어의 유사도가 매우 높아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적다. 우즈베크어 역시 같은 튀르크어 계통인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위구르어 등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번역할 수 있다. 2021년 플리토와 국립국어원이 함께 구축한 8개 언어의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언어로도 병렬 말뭉치 구축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언어들의 병렬 말뭉치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장 다듬기

주어와 서술어는
호응해야 해요!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우리나라의 자유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어인 '우리나라의 자유'와 서술어인 '때문이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때문이다'는 '~것은 ~때문이다'나 '~이유는 ~때문이다'처럼 쓰여야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향로는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향로는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금으로 장식하였다. 장식되었다.

위 문장에서 주어는 '향로는'이고, 서술어는 '장식하였다'입니다.
'향로'는 사물이므로 스스로를 장식할 수 없으므로, 피동형인 '장식되었다'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수상작의 선정은~~
수상작은 사전 온라인 평가와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위 문장에서 주어인 '수상작의 선정'과, 서술어인 '방식이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주어의 '선정'을 서술어로 활용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선택,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김영랑 시 둘러보기 -



손의 집 단간방에 밤이 깊었고
절음의 불상지가 마자 **그물다**
사람의 잇는 서름 말을 다하는
참아할 상면구지 보았더니라

〈벚마울〉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그물다

사그라지다

살펴보기

‘그물다’는 ‘불꽃, 빛 따위가 스러질 듯이 점차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다’를 뜻하는 평북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사그라지다’가 있습니다.

퍼르스러한 달은, 성황당의
데굴데굴 허러진 달 **모도리**에
우독키 걸나웠고, 바위 우의
가마귀 한 쌍, 바람에 나래를 펴라.

〈찬저녁〉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모도리

모퉁이

살펴보기

‘모도리’는 ‘모퉁이’를 뜻하는 평북 방언입니다.
‘모도리’는 ‘모’(귀퉁이)와 ‘돌’(길을 끼고 방향을 바꾸다)과
‘-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물도 **새이**고 밤은 어둡어
닷주엇든 자리는 알길이 업서라.
시정의 흥경일은
외상으로 주고 받기도 하건마는

〈무산〉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새이다

새다

살펴보기

‘새이다’는 ‘밀물이나 밀린 물이 물러 나감’을 뜻하는 ‘새다’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별물’은 ‘새다’의 ‘새’와 ‘-르’(관형사를 만드는 어미)과 ‘물’이 합쳐진 말입니다.

작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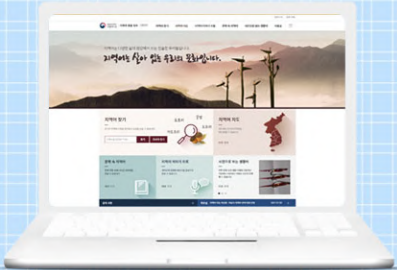
김소월 (1902~1934) 시인은
평안북도 구성 출신입니다.

김억의 영향으로 문단에 등단했고,
1922년에 <<개벽>>에 대표작 <진달래꽃>을 발표했습니다.

민요적인 서정시를 썼으며 작품으로는
<산유화(山有花)>, <점동새> 등이 있고
시집으로는 <<진달래꽃>>, <<소월 시집>>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컬처 핏’은 ‘조직 문화 적합성’으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컬처 핏’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조직 문화 적합성’을 선정했다.

‘컬처 핏’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채용 대상자와의 적합성을 이르는 말이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5월 6일(금)부터 12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컬처 핏’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컬처 핏’을 ‘조직 문화 적합성’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컬처 핏’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 적합성’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5. 4.) 다듬은 말>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컬처 핏 (culture fit)	조직 문화 적합성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채용 대상자와의 적합성. 주로 채용 시 지원자를 단순히 정량 평가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과의 교감, 소통, 조직과의 융화 등을 고려한다.
에피데믹 (digerati←digital+literati)	디지털 지식인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식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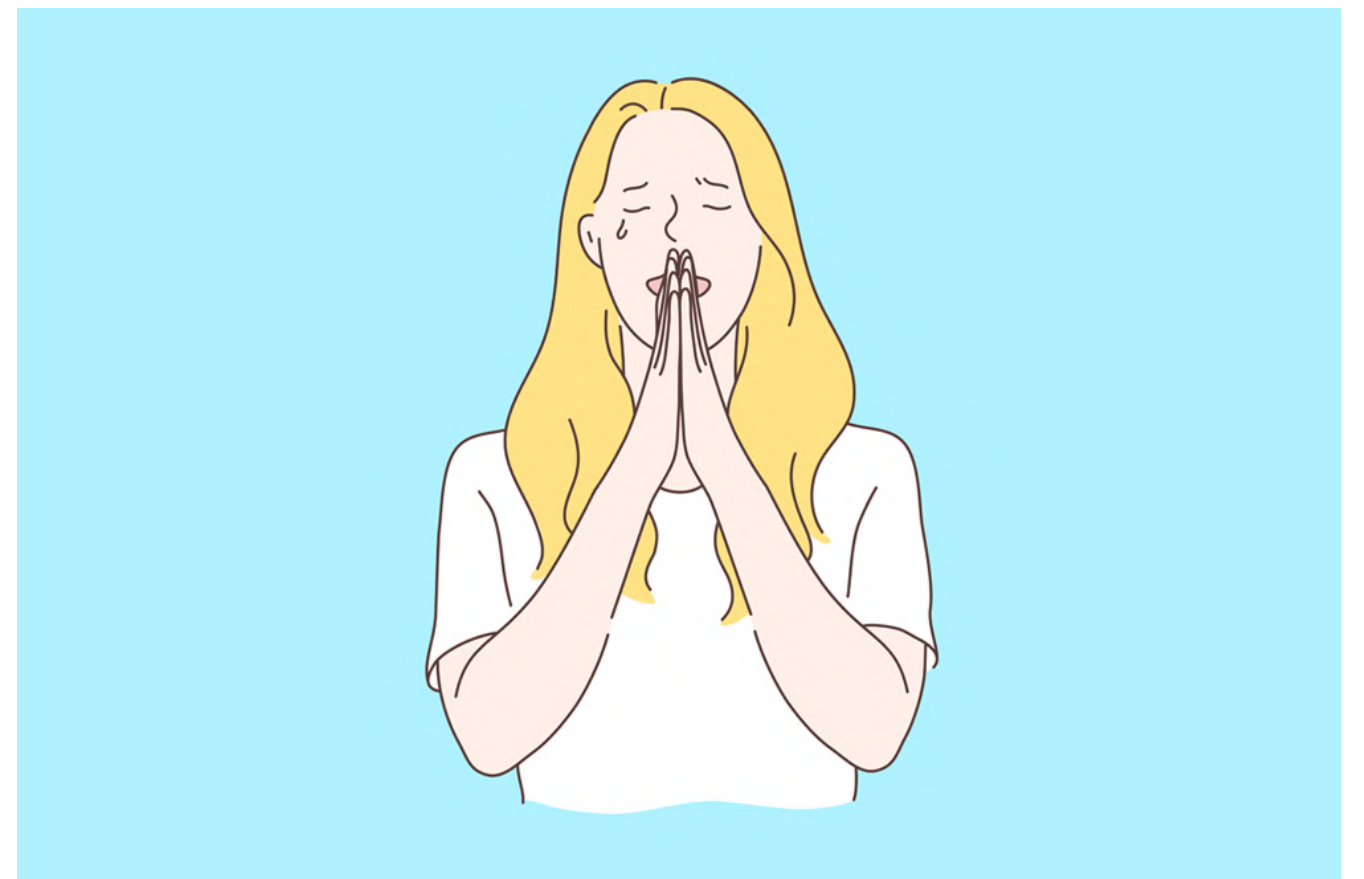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향(영남대 국제학부 교수)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쳤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혹 돌아보며 상대를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간다. ‘괜찮은가 보다’라고 재빨리 판단하며 나도 그냥 간다. 장면을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친구와 약속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많이 막힌다. 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늦어버렸다. 저기쯤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보인다. 뭐라고 말을 할까? ‘많이 기다렸지? 추웠겠다...’라며 우선 친구를 달랜다. 마지막에는 음식값도 계산하며 늦은 값을 치렀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드라마 같은 장면 두 개를 봤다. 이렇게 미안할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인들은 보통 뭐라고 하는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는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배운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는 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한국인의 사과 방식이 그러하다. 옆 사람과 부딪치고서도 괜찮은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나, 약속에 늦으면 위로하면서 밥을 사는 한국인의 대처 방식을 한번 곱씹어 보자.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례 중에는 한국인의 사과 표현에 대한 불평이 많다. 한국인은 사과했다고 하고, 외국인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중간한 상황들이 그것이다. 한쪽은 사과의 낱빛을 보냈고 여러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사과로 보지 않으니 답답할 일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사과문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했음’으로 이루어진다. 사과는 잘못을 말하고 미안하다며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를 하는 사람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다, 거둬 사과하다’와 같이, 사과는 정중해야 하고 때로는 거둬야 할 일일 수도 있다.

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나: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왜 아직 다 못 했어요?

가: 제가 좀 더 서둘러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다음부터는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가: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사과인지 변명인지 혹은 위로인지를 알 수 없는 표현들도 많다.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건네는 사과에서는 미안함을 대신할 독특한 표현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정말 많이 기다렸지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간혹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뒤따르는 변명이 훨씬 길 때도 많다. ‘미안해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휴대 전화 배터리가 없었어요. 시청 앞에 행사가 있어서 차가 꼼짝도 안 했어요.’와 같은 예시가 확인된다.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보상으로 대신 표현한다.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맛있는 저녁 사 줄 테니까 그만 화 풀어.’와 같이 말한다.

한국인의 사과는 왜 저렇게 구구절절하냐는 한국어 학습자의 말에, 한국인으로서 그 까닭을 짚어 본다. 일의 연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억울함, 자신의 고의가 아니라는 마음, 사과하는 쪽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 분위기 등 그 내면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환경 탓을 주로 하고, 심지어 상대의 지난 잘못을 들추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는 모습도 왕왕 보인다. 사실 ‘사과에 인색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한국인도 잘 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적인 사과의 말을 여러 언행으로 대신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언어문화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을 하는 우리는 ‘가르쳐야 할 사과의 언행’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그간 한국어 교재에서 사과의 영역이 모호하지 않았는가? 우리 언어생활에서 사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의 이런 문화가 반영된 표현이 언어 모방의 준거가 될 교재에 실리는 것은 정당할까? 한국어교육이 한국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외 현지의 한국어 학습자가 그 문화권에 맞는 사과 표현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로 맞추어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오늘도 한국어교육을 위한 숙제를 한 아름 받아들이고 나선다.



공헌과 헌신, 같은 듯 다름 쓰임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순국선열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여기서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에게 보답을 하는 일이다. 그들이 보인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 생전에 최고로 예우하고, 사후에는 감사함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공헌이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자주 쓰는 ‘헌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헌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써 이바지함’이다. 헌신의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다. 공헌과 헌신 사이의 근본적인 개념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공헌과 헌신을 완전히 같은 말로 볼 수는 없다. 둘은 분명히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가. 국가를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공헌**을 기억해야 한다.

나. 남편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십 년째 **헌신**으로 시중을 들고 있다.

문장 다듬기

공헌과 헌신은 행위에 의미의 초점이 놓인다. 그런데 공헌은 행위의 대상이 공동체로서의 집단, 사회, 국가를 가리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공헌은 주로 추상적인 대상과 함께 쓰인다. ‘국가에 공헌’, ‘지역사회에 공헌’은 자연스럽지만 ‘아내에게 공헌’, ‘남편에게 공헌’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에 비해 헌신은 공헌보다 대상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국가에 헌신하다’와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고 ‘배우자에게 헌신하다’, ‘자녀에게 헌신하다’와 같은 표현도 널리 쓰인다.

가. 국가를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공헌**을 기억해야 한다.

나. 남편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십 년째 **헌신**으로 시중을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헌은 행위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일 때에 잘 어울린다. ‘△△ 자치단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발표했다.’ 등등 공헌 대신 헌신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공헌이 좀 더 자연스럽다.



나라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하는 것이 비단 군인들만은 아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일상 속에서도 고마운 헌신을 찾아볼 수 있다. 호국 영령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다양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기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글: 강은혜

문장 다듬기

뜻은 중복되지 않게 써요!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10년 전 사고로 반 이상이
함몰되었던 건물은 ~~다시~~ 재건됐다.
→ 재건됐다. / 다시 세워졌다.

'재건되다'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다시'를 쓰면 의미가 중복됩니다.
'다시'를 들어내거나 '재건됐다'를 '세워졌다' 등으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그 안건은 구성원 중 ~~과반수를 넘는~~
→ 절반을 넘는 / 과반수의
참석자들이 찬성한 것이다.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이미 '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과반수를 넘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입니다.
'과반수를 넘는'을 '절반을 넘는', '과반수의' 등으로 고치면
문장이 간결해지고 뜻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해당 업체가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했다~~
→ 착공했다. / 공사를 시작했다.

'착공하다'는 '공사를 시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어로 '공사'를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공사들'을 들어내거나, '착공했다'를 '시작했다' 등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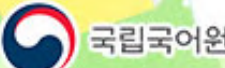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원표, 마침표.

문학작품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이상화 시 둘러보기 -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낮에도 밤-밤에도 밤-
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디지기가 같은 신령은
광영의 목거지란 일출도 모르고
술취한 장님이 머-느 길을 가듯
비틀거리는 자욱엔, 찻줄이 흐른다!

〈바울〉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디지기

→

두더지

살펴보기

‘디지기’는 ‘두더지’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경상 방언 ‘뒤지다’에는 ‘뽕을 파헤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뽕을 파는 두더지의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마음의 막다른
날근 뒤희에선
뉘지 모르나 까닭도 업어라.

〈단조〉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뒬

→

풀, 잔디

살펴보기

‘뒬’은 ‘풀, 잔디’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위 시에서 ‘뒬집’은 풀로 지붕을 이은 집을 뜻합니다.
뜻이 같은 경상 방언으로는 ‘띠, 떼, 땃장’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청춘을 잃어버린 낙엽은, 미친 듯, 나부끼여라,
설업개도, 졸갑개, 조으름 오는 적열이, 더부령거리다

〈가을의 풍경〉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더부령거리다

→

일렁거리다

살펴보기

‘더부령거리다’는 ‘물위에 떠서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림’을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일렁거리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 작가 정보 •

이상화 (1901~1943) 시인은
대구 출신입니다.

《백조》의 동인으로,
남만적 경향에서 출발해
상징적인 서정시를 주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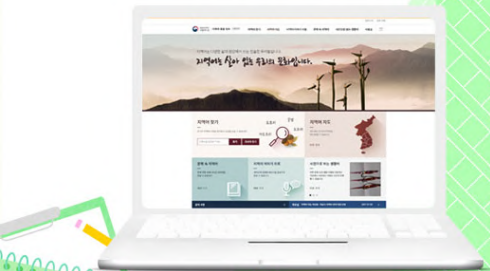
시 작품으로는 <나의 침실로>, <단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28

‘케이 티처’의 한국어 이름을 찾아 주세요!

국외 한국어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 제안



‘K-티처’의 한국어 이름을 찾아 주세요!

국립국어원은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교원’이나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세계 곳곳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가칭 K-티처)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K-티처’**, 그 한국어 이름을 제안해 주세요.

공모 주제

국외 한국어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도 친근한 이름

공모 일정

2022. 6. 21.(화)~6. 30.(목) 18:00

당첨 발표

2022. 7. 29.(금) 18시

*공모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알림

공모 자격

한국어를 사랑하는 누구나!

접수 방법

아래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양식 작성 후 제출

*개인정보 동의 필수



시상 내역

으뜸상	1명	100만원
버금상	1명	50만원
참가상	30명	통닭 한 마리 (모바일 상품권)

*해당 작품이 없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44/9786



우리말 속 차별 언어 인증과 관련된 표현



국립국어원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나 다른 인종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는 변했는데 몇몇 표현들은 변하지 않고 남아
친구, 이웃,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 혼혈 가수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 하는 게 없어!

☐ 저 가수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 하는 게 없어!

'혼혈'은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사전적인 뜻만 본다면 차별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우리와 다른 혈통이라는 뜻이 담기며
부정적으로 쓰여 왔습니다.
'혼혈'이라는 말을 빼도 충분합니다.

국립국어원

☒ 나 살색 크레파스 좀 빌려 줘.

☐ 나 살구색 크레파스 좀 빌려 줘.

'살색'은 살갗의 색깔을 뜻하는 말로,
예전에는 황인종의 피부색이라는 뜻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황인종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살구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 국내 선수 최초로 세계 대회 우승이라니, 흑진주가 따로 없어.

☐ 국내 선수 최초로 세계 대회 우승이라니, 보석이 따로 없어.

'흑진주'는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자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피부색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차별과 편견이 들어간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사투리는 사권의 언어이자 문화 자산입니다

최현애 작가



“니가 4시에 온다 카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끼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어린 왕자가 있다. <<애린 왕자>>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포항 사투리로 표현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관심을 받아 어느새 7쇄까지 찍었다. <<쉽표, 마침표>>에서는 <<애린 왕자>>를 펴낸 최현애 작가를 만났다.



《쉽표, 마침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현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서출판 이팝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애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한 <<애린 왕자>>를 출간했고, 현재 팔도 지역 사투리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표, 마침표》

사투리를 쓰는 어린 왕자가 참 새롭습니다. <<어린 왕자>>를 사투리로 옮긴 계기가 있을까요?

최현애

고향에 와서 우연히 겪은 경험들이 <<애린 왕자>>를 출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나 역사가 궁금해서 지역 기록물들을 자주 찾아보는데, 우연히 30년 전에 제작된 향토역사서 <<영일군사>>에 적힌 사투리 문장을 봤어요. 구술자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한참 웃다가 화자의 모진 삶을 떠올려 보니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신묘한 사투리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했지요. 사투리는 지역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취와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또 우연히 지역 축제에 전문 안내원(도슨트)으로 참여했는데, 제 관람객들이 유치원생들이었어요.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도 눈을 반짝이면서 처음 본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줄줄 따라다니다가 한 원생이 “선생님 덩지요.”하면서 자기 물통을 선뜻 건네주더라고요. 거기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올랐어요. 동심이란 이런 거였지 싶어서요. 기시감이 드는 경험 속에서 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전과 사투리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독일 출판사로 연락하게 되었어요.

《쉽표, 마침표》

<<애린 왕자>>가 외국에서 먼저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최현애

<<애린 왕자>>는 지난 2020년 독일 출판사(틴텐파스, Tintenfass사)와의 협업으로 해외에 먼저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어요. ‘정말 실존하는 책이냐, 가짜냐 진짜냐, 왜 독일에 이런 책이 있느냐’ 등 다양한 반응과 함께 ‘재밌고 신기한’ 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누리소통망에서 입소문이 났지요. <<애린 왕자>> 문장을 직접 소리 내어 따라 읽고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확산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 같아요. <<애린 왕자>>가 출간됐을 때 제목 표기가 틀렸다고 직접 제보를 주신 프랑스 교민도 있었고, 책에 쓰인 한글이 이상하다는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낭독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 문의를 주시는 독자들이 있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틴텐파스는 <<어린 왕자>> 원문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언어를 아카이브하는 언어 전문 출판사인데요. 틴텐파스 에디션은 지역별, 시대별 언어뿐만 아니라 소수 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보존되어 있어요. <<애린 왕자>>는 에디션 125번에 수록했고, 지난해 출간한 전라도 사투리 번역본 <<에린 왕자>>는 에디션 154번에 수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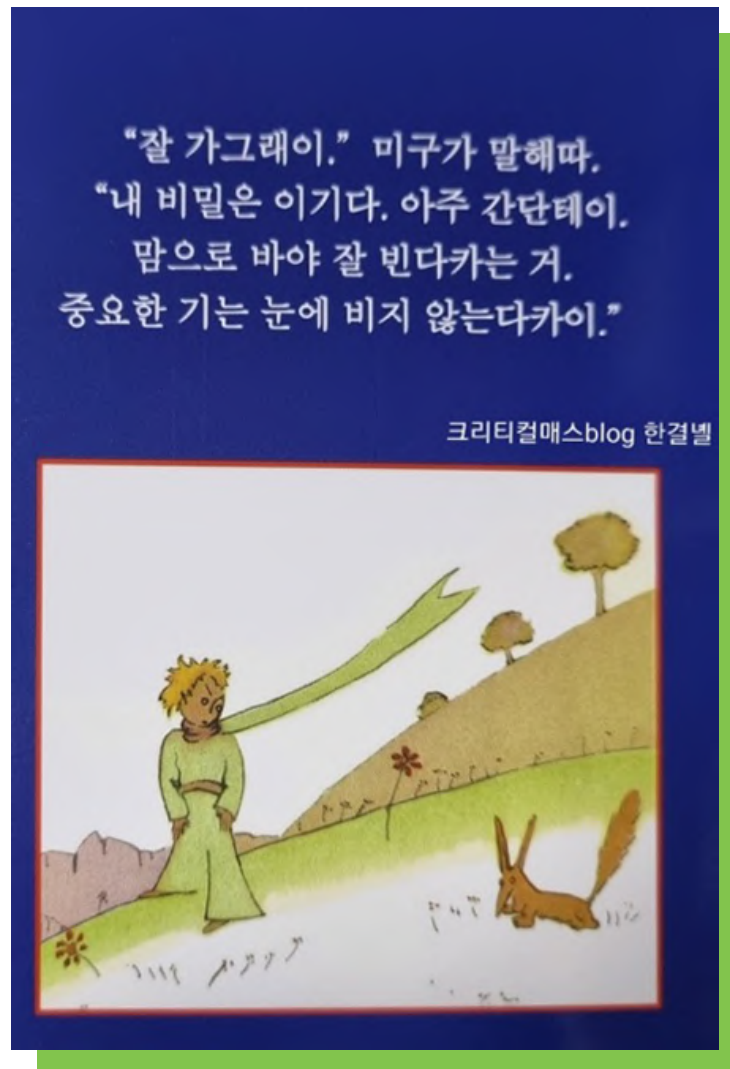


《쉽표, 마침표》

<<애린 왕자>>의 번역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최현애

<<애린 왕자>>는 틴텐파스에서 준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틴텐파스 에디션의 프랑스어 원문과 독일어 원문, 누리집(웹 사이트) 엔젤파이어의 영역본도 참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투리는 입말(구어) 중심인데 원작은 글말(문어)로 되어 있어요. <<애린 왕자>> 번역은 글말을 입말로, 다시 입말을 글말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소리 내어 말하듯 옮겼고, 이후 퇴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문규정을 넘나들면서 맞춤법의 틀을 깨트리는 일탈을 저질렀는데 초고를 마쳤을 때 왠지 모를 희열을 느꼈어요. 자동 맞춤법 기능 때문에 문서 작업창에 전부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 틀려서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문장도 빠짐없이 사투리를 반영했습니다. 초고를 바로 출간할 수 없으니 전문가에게 감수와 자문을 구했어요. 오랫동안 방언 연구를 해 오신 언어학자 이상규 선생님, 지역 민요 구술 채록을 해 오신 민속학자 박창원 선생님, 또 동심을 늘 일깨워 주시는 동화 작가 김일광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국내 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썰표, 마침표》

《〈애린 왕자〉》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어휘나 구절이 있으신가요?

최현애

《〈애린 왕자〉》에는 ‘허거리’라는 말이 나와요. 입마개의 사투리로 ‘허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프랑스어로 뮤젤리에(muselière), 영이라고 하는 입마개, 부리망을 대체할 수 있는 포항 사투리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아쉬운 대로 경주 사투리인 ‘홍오리’를 쓰려던 차에 짚풀공예 작가님이 포항 사투리인 ‘허거리’를 알려 주셔서 쓰게 되었지요.

“탄 사람들이 내 책이 쉽게 읽는 건 싫어가 내가 이케 주킨다.” 이 문장은 사투리로 환기할 수 있는 국어, 한글, 우리 문학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어서 고른 문장이예요. 《〈애린 왕자〉》가 술술 읽히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니가 4시에 온다 카든 나는 3시부터 행복할끼라. 시간이 가든 갈수록 더 행복하긔제. 4시가 되면 하마, 안달이 나가(운집 달아가) 안절부절 모하겠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끼라.” 이 구절은 여우와 어린 왕자의 만남과 헤어짐이 나오는 21장인데요,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이 사투리를 통해 더욱 절묘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밖에 “맘으로 바야 잘 빈다 카는 거. 중요한 기는 눈에 비지 않는다카이.”는 사투리의 입맛이 잘 녹아 있어서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막이 아름다분기는 어딘가 응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데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와 어린왕자의 대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가로서 욕망과 좌절을 동시에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나는 보아뱀이라 카는 기 정글에서 켈로 무서븐 기라코 생각했데이. 여섯 살 땐가 한 번은 <채털달>이라 카는 책을 읽었는데 보아뱀이 지보다 더 큰 짐승을 쫓격거리지도 모하 게 토아리를 틀어가 작 잡아 놓고 입을 썩 벌리고 있는 그림을 봤다 아이가. 조 우에 그림 있제. 지거데이.

책에 보마 보아뱀이 잡은 거는 안 썩아죽고 통째로 삼킨다 카데. 그라든 배가 불러나미 몸은 온 움직이고 소화될 때까지 반 년을 들누바가 잠만 잔다카이 더 이런 기 있나 싫어가



색연필 들고 생각해 보이까 막 요래 안 그려지겠나. 내 첫 작품이데이.

9

《썰표, 마침표》

《〈애린 왕자〉》는 최근 7쇄를 찍었고, 여러 유명인들이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애린 왕자〉》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현애

일단 웃기잖아요. 사투리에는 고유한 지역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경상도의 ‘마!’ 전라도의 ‘잉!’ 충청도의 ‘혀!’ 등 사투리는 사귀의 언어이자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말씨는 새초롬하고, 강원도 말씨는 순박하고, 경상도 말씨는 씩씩해요. 그리고 충청도 말씨는 정중하고 전라도 말씨는 맛깔스럽죠. 특정 언어와 방언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 상태나 그런 느낌을 언어 의식 또는 언어 태도라고 하는데, 사투리에는 순화된 표준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언어의 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정체성과 모국어, 지역 문화에 대한 고민을 <<애린 왕자>>로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나고 자라, 청주에서 공부하고 서울·대전에서 일하고, 해외도 다니면서 지냈는데요. 포항에 다시 오니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투리는 표준어와 같은 한국말이지만 주류가 아니기에 고쳐야 할 말이라 배웠다 보니 그동안 사투리를 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또 싱가포르에 지내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독특한 현지 영어와 중국어를 접하다 보니 제 언어생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지요. ‘싱글리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현지 영어에서 <<애린 왕자>> 출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지역 사투리의 맛과 멋을 재발견할 수 있었지요.

《쉽표, 마침표》

<<애린 왕자>>에 이어 다양한 사투리 번역본을 제작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각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현애

현재 <<애린 왕자>>의 경상도 사투리 번역본을 거쳐서 소리의 고장인 전라도 사투리 번역본을 마쳤어요. 다음으로 충청, 강원 사투리에 이어서 제주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참여하실 분을 공개 모집합니다.(웃음) <<어린 왕자>>를 구수한 사투리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해요. 오디오북 녹음을 역자분이 직접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난한 과정을 참을성 있게 버텨 줄 체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좋겠네요.(다시 웃음) <<애린 왕자>>는 책으로 읽는 즐거움도 크지만 아무래도 사투리는 입말이다 보니 직접 들어 봐야 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진행될 지역어 프로젝트는 오디오북 작업에 공을 더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표, 마침표》

지역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최현애

누리집에 지역어 사전과 북한어 사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단골인데요. ‘우리말샘’에 검색하면서 ‘나만 헛갈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편집, 교정, 교열 등 모든 작업을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해결하니까 누리집 없이 못 산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역어 사전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없다 보니, 방언과 사투리 자료는 <<문학 속의 방언 총서>>에 기반한 ‘지역어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종종 확인하는데 늘 아쉬움이 남아요. 또 언어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유관 부처와 협업해서 북한어 정보도 함께 등록하면 좋겠어요. 통일부의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요.



《쉽표, 마침표》

마지막으로 <<쉽표, 마침표.>> 독자분들과 <<애린 왕자>>의 예비 독자분들께 전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현애

<<어린 왕자>>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위대한 책이에요. 어린 왕자에 깃들여 있는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새롭고 신선하지요. 이처럼 살아있는 메시지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확산하는 건 필연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변방의 지역 언어라고 해서 담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팔도 지역 사투리를 쓰는 어린 왕자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준어로 쓰인 책이 아니기에 읽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린 왕자>>를 접하신 분이라면 사투리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사투리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언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해 주세요. 투박한 듯 섬세하기 짝이 없는, 유머러스하면서 진심 어린 새로운 어린 왕자의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투리 고유의 생생한 입말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때로는 더욱 강력할 수 있다고요.

글: 강은혜
사진: 최현애(본인 제공)

우리말 풀기

문제 1

그는 [깨방정 / 개방정] 떠는 모습도 귀엽다.

정답 찾기 Q

문제 2

사범이 [널판지 / 널빤지]
다섯 장을 겹쳐 놓고 격파하였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자식이 많으니
학비 [뒤치다꺼리 / 뒤치닥거리]도 힘들다.

정답 찾기 Q

문제 4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해
이번 모임은 [파투 / 파토]가 났다.

정답 찾기 Q

문제 5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른다 / 간질인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6. 7. ~ 2022. 6. 2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7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김*훈 (3571)	고*복 (1504)	유*범 (0619)
조*성 (1129)	윤*은 (1029)	홍*원 (2434)
이*영 (9857)	장*덕 (2674)	박*성 (8105)
주*희 (8258)		

우리말 풀기

문제 1

마시고 나아 [비로서 / 비로소] 그 맛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Q

문제 2

그는 [애당초 / 애시당초]부터
장사에는 뜻이 없었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선반 위에 노트가 [얹혀 / 언쳐] 있었다.

정답 찾기 Q

문제 4

두 사람은 [짹짹 / 짹짹]이 잘 맞는다.

정답 찾기 Q

문제 5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젖혀 / 열어제쳐] 밖을 보았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6. 21. ~ 2022. 7. 05.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윌표, 마침표》 2022년 7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김*훈 (3571)	고*복 (1504)	유*범 (0619)
조*성 (1129)	윤*은 (1029)	홍*원 (2434)
이*영 (9857)	장*덕 (2674)	박*성 (8105)
주*희 (8258)		